

ISSUE PAPER

2024 Vol. **03**

| 발행인 윤효식

| 발행일 2024. 9. 24.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사이버폭력 가해 멈추기 : 현실에서 한 걸음씩 내딛기

- 01 청소년 사이버폭력이란?
- 02 사이버폭력의 특징
- 03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의 특징
- 04 가해 행동은 변화할 수 있을까?
- 05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사례
- 06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 07 정책제언



ISSUE PAPER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 Vol. 03

2024 청소년상담이슈페이퍼 3호

인 쇄 : 2024년 9월

발 행 : 2024년 9월

발 행 인 : 윤효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2 / F.(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글로벌임팩트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01 청소년 사이버폭력이란?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 **카톡감옥**: 여러 명이 한 명을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인증놀이**: 수치스럽거나 싫은 행동을 강요하고 이를 인증한 사진·동영상을 보내게 하는 행위
- **지인능욕**: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하는 행위
- **몸캠피싱**: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화상대화를 유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찍게 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저격**: 인스타그램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익명소통 기반 ‘에스크’ 등 SNS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OO셔틀**: 배달앱의 대리결제를 강요하는 배달셔틀, 핫스팟 연결을 강요하는 와이파이셔틀, 자신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강요하는 하트셔틀 등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시작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상편집앱, 채팅앱까지 포함하면 사이버폭력의 경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그 속도에 맞춰 일일이 제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현장전문가 인터뷰 중)

- ‘사이버’는 컴퓨터, 인터넷과 관련된 사이버공간(가상공간)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상에 개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고,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인간의 주된 생활공간이자 사회화를 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송승연, 이창배, 2020).
- 사이버공간의 확대는 비용절감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가시킨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전의 범죄유형과 다른 새로운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공간은 점차 문제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초기, 청소년들은 미디어 이용의 취약층이었으나, 인터넷의 확대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현재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 기술활용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높으며 각종 미디어를 생산-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홍남희 2021).
- 사이버폭력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언어, 문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안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가해청소년에 대한 개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이슈페이퍼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가해청소년들의 행동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02 사이버폭력의 특징

-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서로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다. 가해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가해행위의 시작이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쉽게 폭력에 가담하게 된다.
 -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폭력을 행하게 된다.
 - **무경계성:** 사이버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사이버폭력은 일어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확장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의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 가해자가 게시한 글이나 피해자의 사진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완전히 삭제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2차적 심리적 고통과 피해는 더욱 심할 수 있다.
-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성과 사이버폭력의 특징이 결합하면서, 사이버폭력은 ‘쉽게’ 발생하고 ‘넓고 깊게’ 피해를 주고 있다.
 -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30.0%), ‘재미나 장난으로 또는 스트레스를 풀려고’(20.5%),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15.7%) 등 사소한 이유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가해청소년들을 만났던 현장의 상담자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은 ‘가해’라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인은 장난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복된 일상이니 심각성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이버폭력의 특성으로 피해청소년들의 고통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들은 자살·자해 충동이 일반적인 폭력 피해청소년들보다 더 높았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게시물 삭제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푸른나무재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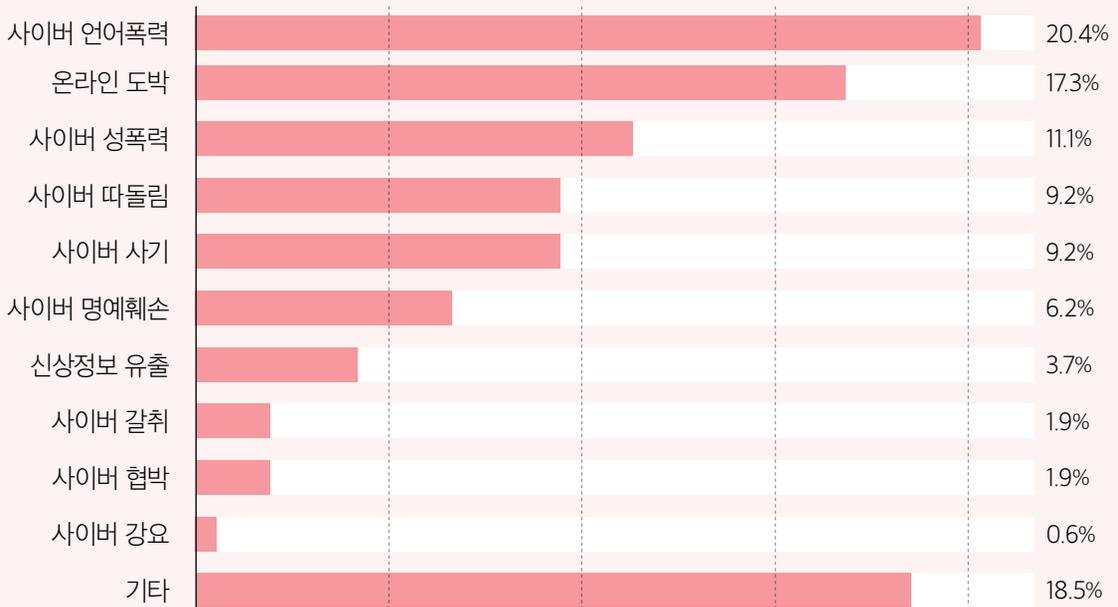


03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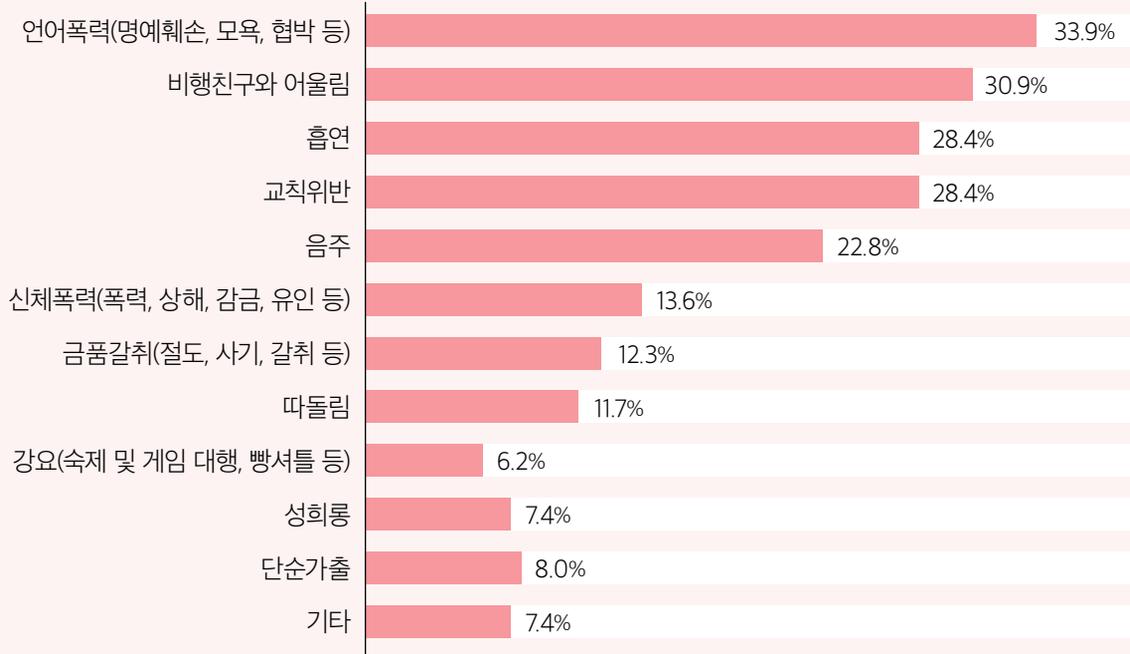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이버 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위해 2023년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상담경험을 가진 종사자를 162명을 대상으로, 총 486명의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가해청소년들이 저지른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20.4%), 온라인 도박(17.3%), 사이버 성폭력(11.1%), 사이버 따돌림(9.2%), 사이버 사기(9.2%) 등으로 나타났다.
 - 이들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중 79.8%는 현실에서도 한 가지 이상의 비행행동을 보였다. 이들이 현실에서 보인 비행행동은 주로 언어폭력(33.9%), 비행친구와 어울림(30.9%), 흡연(28.4%), 교칙위반(28.4%), 음주(22.8%) 등이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상담에서의 주요 호소문제는 자기조절 문제(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21.0%), 가족과의 갈등(18.5%), 불안-우울 등 내재화 문제(17.9%), 대인관계 문제(16.7%)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특성 설문조사 결과**
(N=48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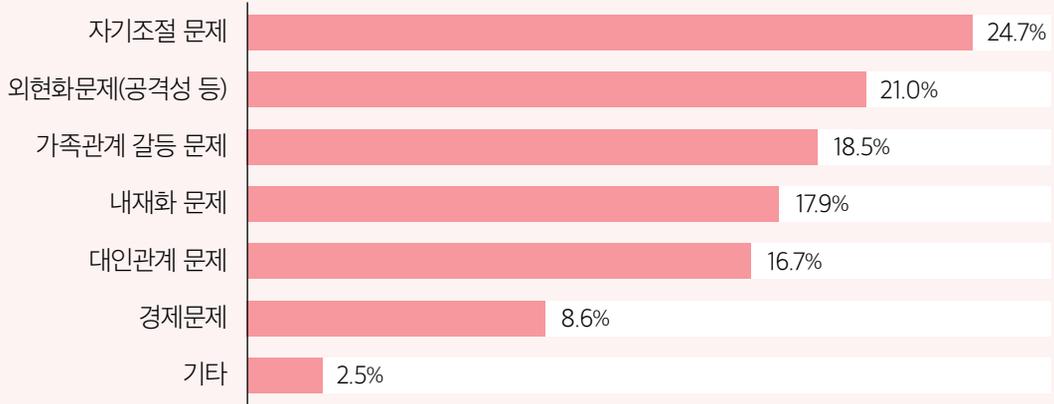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유형>



<현실 비행행동 유형(중복측정)>



<상담 주요 호소문제(중복측정)>



□ 2024년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4%인데 반해 피해 경험률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빈도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거의 매일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5%가 넘었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즉, 소수의 가해청소년에 의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해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04 가해 행동은 변화할 수 있을까?

“네 인생 15초 안에 끝내줄게.”

양준태는 해외 익명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DM을 보냈고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양준태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서도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 땐 뭐든지 해도 된다고 했다”며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의 장면 -

제아는 사소한 이유로 같은 반 친구 혜진이가 싫어졌다. 제아는 SNS에 혜진이의 그림자 계정을 만들어 몰래 찍은 사진과 저장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달렸고, 혜진의 그림자 계정은 전교생의 놀이터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혜진이는 현실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 드라마 [사이버폭력예방 웹드라마] 그림자방의 장면 -

-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은 단순한 재미로 폭력을 저지른다. 이들은 도덕성이 결여되어있고,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이며, 충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꼭 필요하다. 과연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은 변화할 수 있을까?
 - 초기의 가벼운 사이버폭력이 반복되면서 강도가 심해질 경우, 피해청소년들의 상처가 더 커지게 되며, 가해청소년들 또한 재범을 반복하면서 성인기에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높아진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 가해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사이버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활동은 가해청소년들에게도, 피해청소년들에게도, 사회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 일반적으로 우울 및 소외감과 같은 위축된 심리상태는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며, 공격성이 높으면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응택, 이은경, 2015).
 -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가해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현장의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은 부모의 방임 및 학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지도 감독 부재, 보호자와의 관계 단절 등 가정요인이 사이버폭력의 주요한 촉발요인이라고 밝혔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따라서 가해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청소년 1명이 있으면, 피해청소년은 10명이 생길 수 있어요. 가해청소년을 상담하고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피해청소년을 줄이기 위해서...”

- 현장전문가 인터뷰 중 -

05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 사례

- 인터뷰 과정에서 마주한 사이버폭력 사례에서 청소년의 가해행동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총동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상담을 통해 행동변화에 다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큰 비행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사례1: 총동적으로 저지른 가해를 후회하고 반성함

고등학생인 A는 불법촬영으로 보호처분 1년(4호)을 받고 이행하는 중이다.

“학원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애들은 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고, 지나가며 툭툭 건드리고... 1년 넘게 끔찍 참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교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아이들 말만 믿고 저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불법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다보니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발각이 되었고 학교에 소문이 퍼져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 사이버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2023)의 청소년 인터뷰 재구성

청소년사례2: 현실세계의 피해가 사이버세계의 가해로 전이됨

초등학생인 B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사이에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었다. 어쩌다보니 SNS에 친구에 대한 욕을 올리게 된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약자였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역전 되어 누군가를 욕하고 괴롭히는 강자가 된 것이다. B는 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강명령(2호)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부모님마저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며 B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B는 사이버공간에서 가해를 일삼는 무리를 만나 이들과 교류하면서, 사이버폭력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가출을 반복하던 B는 결국 회복시설(6호)로 처분 변경이 되었다.

- 사이버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2023)의 현장전문가 인터뷰 재구성



🔊 가해청소년 상담자의 이야기: 느리지만 결국은 변화할 것을 믿는다.

“제가 만난 가해청소년들은 대부분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라면서 거절을 당했거나, 공감받은 경험이 없어 정서적으로 결핍된 아이들이었죠. 이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사이버공간에서 분노로 표출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상세계에서 우월감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정서불안을 해소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이 쌓이다보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많은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폭력적인 가정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은 사이버세상으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의 변화 노력도 필요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인터뷰

🔊 보호관찰관의 이야기: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과 지원으로 좋아지는 사례도 많아...

“제가 만난 대부분의 가해청소년들은 경찰서에 입건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범죄인지 몰라서 저지른 경우도 있고, 정말 들킬지 몰라서 저지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태도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범이 많고 재범확률도 낮은 편이에요. 사건경위를 읽다보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되다가도 실제로 만나서 지도를 하다보면 애들은 애들이다 싶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임을 감안한다면 지원도 필요하고요.”

- 청소년 보호관찰관 인터뷰

- 현장에서 가해청소년들을 만났던 전문가들은 가해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반성을 하고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06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상담개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이들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2023)>을 개발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 매뉴얼의 주요한 개입전략은 아래와 같다.

●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 가해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사이버폭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행동의 결과로 야기될 피해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소년사건의 처분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일상생활에서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을 연습하여 자기조절능력 향상

- 자기조절능력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사이버폭력 가해청소년들 중 다수는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충동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이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력이 부족한 가해청소년들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한다.

●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막기 위한 보호자 개입 전략 및 교육 내용 제시

- 매뉴얼에는 부모 및 보호자 상담에 활용하도록 사이버폭력의 개념,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 대처방안,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제공하였다.
- 가해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 중 25.9%는 부모 및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보호자 및 가정환경의 개선이 없을 경우 청소년들이 다시 가해행동을 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따라서 가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가해청소년의 행동변화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참고: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 아래의 내용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해당합니다.
- 여러분들은 아래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번호	내용
1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한 적이 있다.
2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3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하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4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5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6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 성격에 대해 비난(예: 인성쓰레기 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7	채팅서비스(카카오톡, 타임라인, 에스크 등) 이용 중 친구들의 친구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를 제외시킨 적이 있다.
8	사이버 게임 상에서 친구들을 고의적으로 소외시킨 적이 있다.
9	채팅서비스에서 특정 친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여 소외시킨 적이 있다.
10	사이버 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11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의 게시글에 다수가 적대적인 말이나 욕설을 할 때, 참여한 적이 있다.
12	사이버 상에서 모르는 사람의 험담이나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3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야한 사진을 요구한 적이 있다.
14	사이버 상에서 원치 않은 성적인(야한) 내용이 담긴 글 또는 소설을 보낸 적이 있다.
15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야한 내용이 담긴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퍼트린 적이 있다.
16	온라인 구매에서 물건을 받고도 돈을 보내지 않은 적이 있다.
17	사이버공간에서 거짓말을 해서 돈(사이버머니)이나 물품 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
18	남의 계정이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다.
19	사이버공간에서 불법 약물, 공격 도구류, 감시 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적이 있다.
20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문자, 이메일, SNS(대화방)으로 계속 초대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다.

※ 출처: 정여주, 신윤정(2020)과 김희양, 박창호(2022)의 척도문항 재구성

🔊 참고: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예방하기

청소년들은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부모 및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예방될 수 있다.

○ 자녀와의 친밀감을 자주 표현하기

- 사랑, 공감, 감사를 표현한다.
-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
-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 자녀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 가족 내 명확한 규칙을 가지기

- ‘술, 담배, 싸움, 사이버상의 폭력 등은 안된다’는 명확한 규칙을 자녀와 함께 만든다.
-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워 만약 규칙을 어긴다면 규칙대로 훈육(처분)한다.
- 자녀들이 싸움, 절도, 술, 담배를 하는 무리에 속해있다면 그 무리를 떠나게 한다.
- 친구들이 유해한 행동을 권유한다면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 자녀와의 친밀감을 자주 표현하기

- 자녀가 누구와 함께 있고 인터넷(휴대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진다.
-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무엇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지켜본다.
- 자녀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처: 사이버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07 정책제언

□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예방하는 교육 확대

-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형태를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꾸준히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현장의 청소년상담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이버 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이더닝'을 개발·배포하였으며, 전문강사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 사이버 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2023)
- 학교폭력 외상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2022)
- 청소년용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2021)
- 사이버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2020)
- * 위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담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음

□ 가해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의무교육 강화

- 현장에서 가해청소년을 오랫동안 만나온 상담자와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청소년들의 부모 및 보호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분 및 의무사항(특별준수사항 부과)으로 보호자 교육,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가해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들을 교육할 전문강사와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가해청소년 부모개입 전략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부모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5년 청소년상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 사이버 환경 개선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 전사회적 노력 필요

- 기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기술 활용능력을 의미했다. 하지만 관계 중심의 SNS환경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생활하는 사회문화적 리터러시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 미디어에서 연결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 디지털 활용에 관한 윤리 및 태도를 포함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홍남희, 2021).
-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양산되면서 청소년 사이버폭력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SNS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SNS에 청소년 연령제한 및 규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청소년의 경우 성인들의 범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극적인 가해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산될 경우 청소년들의 모방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접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기에, 사이버폭력 보도에 있어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소개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은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악물·물건의 유통**,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출입을 조장하는 청소년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사회 법익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정보**를 신고 및 차단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매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강희양, 박창호 (2022). 청소년용 사이버 비행 척도 개발의 타당화. 청소년시설환경, 20(2), 25-36.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송승연, 이창배 (2020).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115-136.
- 연합뉴스 (2024).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2024. 2. 11.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8150000004>
- 이응택, 이은경 (2015).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한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변화유형 탐색과 특성. 미래청소년 학회지, 12(2), 111-130.
- 정여주, 신윤정 (2020).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453-1473.
- 푸른나무재단 (2024).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보도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특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사이버 비행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
- 홍남희 (2021). 미디어 리터러시 담론과 아동, 청소년: 미디어 이용 취약층에서 일탈의 프로슈머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107, 149-180.